

연중 제17주일

기도서 P. 402 C해
 제1독서(창세기 18, 20-32)
 제2독서(골로 2, 12-14)
 복음(루카 11, 1-13)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강론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한 봉 섭 신부

하느님 앞에 그분을 믿는 신앙인은 그분과의 끝없는 상통으로 이어지는 삶을 영위한다. 그분의 면전에서 바로 그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그분을 만나 대화에 참가하는 것이 기도라면, 크리스찬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성장한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는 신앙인은 가끔 기도의 문제로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믿 것인가?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주님의 기도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은 무엇인가 기도해야 할을 절감했으리라 그들중 하나가 주님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다. “주님, ...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루카 11, 1-4)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주의 기도”라 불리는 이 기도는 간절하면서도 아름답고 완전한 기도문이다. 우리는 모든 기도의 모범으로 제시된 이 “주의 기도”에서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볼 수 있다.

필요한 것을 기꺼이 내려 주시려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를 부르며 나가는 겸허한 자세가 요구된다. 억지로 무엇을 얻어 내려는 그러한 기분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흔히 기도에서 주도권을 우리, 아니면 나에게 부여한다. “그래서 하느님께 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이란 말이 생긴 것 아닐까!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과 그의 영광(찬미와 감사) 그리고 흠숭을 표해야 하리라. 그 후에 우리의 자리가 부여되어야 하겠다.

또한 기도는 우리 삶의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과거, 미래의 모두를 하느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현재(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생의 필수품)을 간구하면서 우리의 결실을 그분의 인도에 맡기고 그날 그날을 살아가야 한다. 더불어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앞에 죄인인 우리는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가 용서 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먼저 용서해야 함이다. 죄의 유혹을 포함한 모든 시련의 상태에서,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시련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청원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하도록 제시해 주신 주의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좋은 기도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세상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의 생이 복될 수 있도록 축복을 빌자! 그러나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의 계세마니 기도에서처럼 “제멋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마태 26, 39)라는 위탁의 자세로...

(장제 천주교회 주임신부)



숨은 재주나...

-1억 5천만원짜리 곰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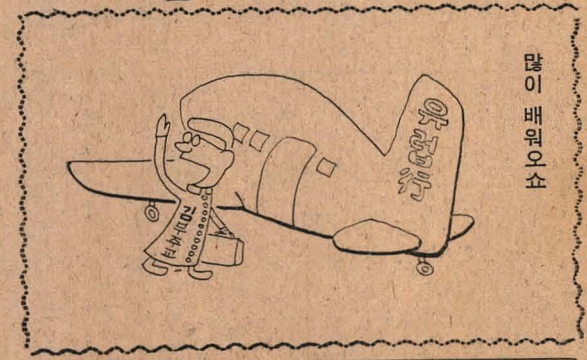
사람들은 구경을 참으로 좋아한다. 운동시합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불구경과 싸움구경까지 말이다. 正義가 승리하는 걸로 끝을 맺는 전쟁영화가 불만해서인지, ‘나만 죽지 않는다면 전쟁도 할만하다’는 꾀꼬리한 농담까지도 서슴없이 지껄리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구경은 재미가 있다. ‘딱’ 소리와 함께 시원하게 터지는 안타나 홈런, 필의 귀퉁이를 찾아 쫓히는 점점 점박이 공, 깨끗한 주먹에 그려지는 큰대(大)자-이 모두가, 지는 편이 야 어쨌든, 구경하는 사람편에서는 시원하기만 하다.

그래서 큰 경기의 중계가 있는 날이면 심지어는 주일 미사까지를 포함한 모임에 차질이 생기기 일쑤다. 승부와 뛰어난 기량의 구경거리에 끌리는 관심의 표현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나의 심리적인 이물질은 「떨어버리고 싶은 멧집」을 풀고 싶어서 일 것이다. 무엇이랴도 두들겨 부수고 싶은 심정을 대신해주는 경기에서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심산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네처럼 어려운 형편에서 멋진 경기구경이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너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서 문제이다. 어느 체육부 기자의 지적처럼 「엄청난 외화(6월과 7월의 두차례 권투경기에 1억5천여만원)가 나가고 수많은 팬들의 불쾌지수를 높이는 부작용」이 문제인 것이다. 하기가 챔피언을 따냈더라면 별로 문제거리가 안됐을 지도 모르기는 하다.

챔피언 벨트가 극위선양에 도움은 되겠지만, 피나게 절약하고 저축해야 할 우리 처지에서 이렇게 엄청난 지출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텔레비전 중계에 돈을 내주는 광고를 볼 때마다 아찔하다. ‘저 제품을 나도 쓰고 있는데, 또 썩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미치면 속이 쓰리다 못해 뒤집히기까지 한다. 막아라 계발.

숲 정이 산책



신부 수녀 유언비어 관련 기사를 보며

형소에 가까웠고 이미 연행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신문에 발표되었다고 해서 새삼 놀라지 않았지만, 일면 툭기사로 나오고 엄청난 죄인 취급을 당할 때 안타깝기 그지 없다. 더구나 T. V를 시청했을 많은 대중 더구나 주님의 백성의 경악과 당혹은 어찌하라! 예수를 사형으로 선고하는 빌라도 처럼 "진리가 무엇인가" 독백한다.

마침 이 뉴스가 발표되었던 주일미사 복음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였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알면서도 똥단지 같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는 율법교사에게 주께서는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어쩌면 그대들은 진정으로 두둔하고 변호하고픈 이때에 얼마나 반가운 복음이나. 더욱 뜨겁게 읽은 복음에도 주께서 "나 때문에 팔려가 재판을 받게 될때 어떻게 말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는다. 정녕 그대들은 대맞고 빼앗기고 쓰러져 신음하는 형제들에게 착한 이웃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주려했던 것이라고, 적어도 입이 있어도 억울함을 말 못하는 형제들의 입이 되어주려 했었을 게다. 바로 주께서 오늘 우리 보잘것 없는 형제들 안에 고통당하심을 믿는 그대들이기에,

그러나 한편 그대들에게 던져지는 차가운 의심하는 눈초리들을 본다. 그렇게 악랄한 거짓을 퍼뜨리다니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망신을 자초하여 우리의 망함을 원하는 자들에게 이롭게 하다니... 어떻게 대꾸하려 하긴 신문보도만 보면 너무 지나친 표현들이다. 하지만 강도맞은 자의 입장에서 그 원통함을 어느정도 호소하지 않겠는가? 원수를 갚아 달라는 선동적인 언어도 가능했을 게다. 여하간 이성을 잃은 무리들의 집단행동 가운데는 별별 상식을 초월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안다. 혹시 신문에 거두절미해서 난 기사만이 아니라, 전문을 본다면 어느 정도가 진실이고, 어느 정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지 모르겠다. 하기가 이 판단단은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들게다. 여러 사람이 여러곳에서 각각 다른 때에 일어났기에 그 누가 모두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망신망신하는데 망신 때문에 진실이 가려져야 하는가. 진실을 밝히는 것 못지 않게 숨기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해로운 것이다. 하여간 저들이 외칠때, 우리는 잠잠할 것이다. 저들이 침묵할 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형제들 때문에 소리를 높일 것이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실은 어느 특정인만이 아니라, 우

8월의 중요행사

뜨거운 8월은 그 열기만큼 또한 바쁜 달. 각 본당에서는 여러가지 연수회, 야유회 등으로 8월의 뜨거움을 잊을 것이고...

교구에서도 역시 9월의 커다란 행사를 위해 준비하고, 교구단위 교육과 지역대회 등의 행사에 한 더위도 생김 잊고 지낼 것 같다.

고교생을 위한 지역대회를 비롯하여 8번째의 여성 푸르실로가 6일부터 시작, 고창 동해원에서의 공동체 북상회 - 그리고 28일엔 교구장님의 영명축일이다.

특히 8월은 교구의 열매적인 중요행사의 하나로 매년마다 성황리에 개최해 왔던 순교자 현양대회 준비를 위하여 분주해 진다.

금년으로 제 5 차를 맞는 이번 순교자 현양대회를 보다 진실하고 보람있게 지내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예년보다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교구 평협에서는 8월초에 교구 평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행사의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종합할 것이다. 또한 각 지구에서는 3/4분기 지구회(8월5~8일)를 통해 행사에 대비, 예선을 위한 지구별 계획을 상의하게 될 것이다.

이미 교구 중요행사 계획에 수립된 바 있는 행사 일정에 따라 각 지구별로 예선을 거쳐 결선에 이르게 되는 각종 행사에 대비해서 각 본당의 관심과 열성의 노력을 기대한다.

순교자 현양대회를 위한 중요행사 일정

8월5~8일 : 3/4분기 지구회의(대회 대비)

8월24일 : 응변 및 성가 경연대회 지구별 예선

8월31일 : 교리경시 및 사생대회

(각 본당에서 초·중·고·일반)

9월 7일 : 지구별 체육대회(중·고·일반)

9월14일 : 응변 및 성가 경연대회 결선

9월21일 : 교구 체육대회(초·중·고·일반 결선)

9월28일 : 제 5 차 순교자 현양대회 각종대회 시상식

더 모두가 우리나라 전체가 강도 맞은 두토막 난 처지가 아닌가?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사랑이 아니라 참이웃이 되어야 한다. 그 청년처럼 누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인가 하며 외면하지 말자.

그대들의 진정이 모든 이들에게 이해되고, "용서되기를" 하루 빨리 그대 양들 결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착한 "목자"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아울러 유비통신이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서울주보 120호에서 발췌)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소량도 신속 배달하겠습니다

한 미 주 유 소

전화 ② 5669번

주 최 남 수(아블로니오)

(가톨릭 센터 사무장)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저문·제대장식

유명장사 직접지도 꽃꽂이 회원모집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2-2628

범 띠도(떡배)·이 마리아

교리교사 연수회를 마치고...

귀여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리교사 선생님들의 연수회가 7월21일~25일에 걸쳐 가톨릭 센터에서 있었다. 교사들의 자질 향상과 하기 주일학교 교리를 위해 마련된 이번 모임은 1차에 (전주·이리·군산) 2·3·4지구의 99명의 선생님들과 2차에 그의 1·5·6·7지구 60명의 선생님들께서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춤과 노래의 시간을 가진 이번 연수회는 유익하고 알찬 하기 주일학교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수고하신 김기수 지도신부님, 강사 신부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수회에 참가하신 교리교사 선생님들도 뜨거운 열기속에 수고들 많으셨다.

그리고 이 연수회에 협조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물 드린다.

협조해 주신분들

중앙성당 콜라 5상자, 서학동 콜라 3상자, 전동 콜라 3상자, 덕진 부녀회 1만원, 문규현 신부님 1만원, 김을태 복숭아 1상자, 전동 주일학교 자모회 요구르트 150개, 천진교장선생님 금일봉

농민회 전복 연합회 임원 야유회

가톨릭 농민회 전복 연합회는 지난 17·18일 양일간 고산 성당에서 임원 야유회를 가졌다. 신태근 회장을 비롯한 도내 전역에서 임원들이 모인 이날 야유회는 그동안 모내기 등의 농사일에 지친 회원들의 심신의 피로를 달래며 즐거운 한때를 즐기려고 했으나, 집회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간단하게 당일로 마쳤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교구청 김환철 부주교님을 비롯한 교구내 10여분의 신부·수녀님들과 회원들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더욱 헌신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오랜만의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L.M 25주년 기념 준비회의

금년으로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아에는 창설 25주년을 맞는다. 이 뜻깊은 해를 맞아 성모님께 대한 뜨거운 헌양과 레지오 마리아에 더 큰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9일~20일 가톨릭 센터에서 교구내 L.M간부 20여명이 자리를 함께해 그 준비회의를 가졌다. 좀더 계획성 있고 알찬 25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을 모았다.

아직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웃 형제들에게 하느님을 잘 알리고, 따르도록 인도 하므로써 참신양인이 될 수 있도록 전교하고 노력하자는데 서로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 25주년 행사가 주님의 은총 안에 잘 이루어지기를 빈다.

요심이 (364) 김병오

공직자 숙청 후속 인사발령이났구나



어느도출신인사가 많이 승진되었는지 통계내보자




역시...



사진자료 및 기계 칼라필름 도산매

유 광 사

주 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화 ㉠ 4448 · ㉡ 2176

茶房 門을

열었습니다.

전주 전신전화국 앞 옛자리 지하

☎ 5013 · 5011

임금님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이 창 수(바로로)
전주 남문 옆
전화 ㉠ 8188 (자 ㉡0369)

<수시 접수> 매월 1일 개강!

주산·부기·타자

- 넓고 시원한 강의실
- 원장 선생 직접 지도
- 유치반(6세) 개설

김제읍 요촌리 156-15
(고속버스터미널 앞)

관인 제일 경리 학원

원장 김유근(요한) ☎ 2953

◎ 건강 관리 센터 ◎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시내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옆 중앙 시장통
(전화 ㉠ 4577, 5789)

◎ 마인드 컨트롤 강좌 안내

일 시 : 8. 8. 10(일)~8. 21
(12일간)

오전반 : 9시 30분

오후반 : 6시 30분

장 소 : 전주 가톨릭센터

강 사 : 김중배(말시아노)선생

무료 공개 강의 : 8. 10~11

(2일간)

연락처 : 가톨릭센터

전화 ㉠ 3498 · 7127번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중·고등학생 연합회 하기 수련회...7월 29일<화>~8월 1일<금>, 장소-고산당 (29일 오후 1시까지, 고산성당에 집결), 참가대상-각 본당 중·고학생회원, 참가비-1인당 1,000원, 지참물-필기도구·세면도구·성서·성가집 ※ 참가 본당별로 일체의 취사 및 텐트를 자체 해결할 것
 2. 중·고생 교리 경시대회...8월 31일<일> 밤11-주요기도문, 마르코 복음 전체, 교리서 제3편 그리스도의 계명 (43~54과)
 5. 대학생 연합회 행사 안내...① 연합미사-화요일 오후 5시, ② 성서 강의-수·금요일 오후 5시, ③ 성가 연습-목요일 오후 5시, 노충동 성당에서
 4. 5지구 청년회 모임...8월 3일<일> 오후 2시, 임실 천주교회에서
 5. 성소자교육...7월 30일<수>~31일<목>, 가톨릭센터에서 ※ 사제지방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여섯 제 8차 푸르실로 실시안내...8월 6일<수>~9일<토>, 가톨릭 센터에서
회비-15,000원 접수마감-7월 31일까지
- 경의 평화를 위한 성금...팔마 교리교사 3천원, 2·3·4지구 교리교사 17,420원, 창인동 교리교사 4천원

(중앙)

전화 ③651 3874
주임 신부 보좌 신부 사도 회장
윤정현 박성팔 김병구

1. 주일학교 하기교리: 28일~8월 2일, 오전 9시~12시 부모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교재비 200원입니다)
 2. 공소 하기교리: 8월 4일~8일, 오전 9시~12시
 3. 특별강연: 당신은 왜 하느님을 믿습니까? 30일 오후 8시
 4.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8월 3일<일> 공식미사 후
 5. 인성회 월례회: 8월 4일<월>
 6. 공소 주일 미사시간 첫째주-오후 3시, 둘째주-오후 3시
 7. 젊은이를 위한 미사: 일요일 저녁 7시 30분
 8. 7월 5일자 영세하신 분 심신단체에 가입하세요
 9. 마리아 불리: 7월 26일~28일, 논산 쌀밭 여중·고
- 지난주 봉헌금: 449,89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사도 회장
김병환 한철수

1. 중·고생 하기 수련회: 28일~31일 (3박 4일), 압록
 2. 첫 영성체자 교리: 8월 1일부터 (오전 10시)
 3. 주일학교 하기교리: 8월 4일~9일까지 (오전 9시) 부모님들의 많은 협력 바람
 4. 울드레아: 29일<화> 저녁미사 후 (저녁 8시 30분)
 5.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김낙균·박순성 신자들의 기도-김광수
- 지난주 봉헌금: 152,115원 교무금: 96,000원

(숲정이)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사도 회장
이대권 이강노

1. 주일학교 아동 하기 교리안내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일주간 (매일 9시 정각)
 2. 요안나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중·고등 학생 하기 수련회: 7월 29일부터 3박4일간 전안 성수면 냉천, 중·고등학생 전원 참석 바람
 4. 사도회 월례회를 신철사정으로 8월 10일로 연기
 5. 누깁다 부녀회 월례회: 8월 2일
 6.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매주 공식미사후,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7. 봉헌금이 부진하여 본당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으나 밀리지 않도록 합시다
 8. 신축기금 내주신 분: 진을순(1만원), 박대규(5만원) 김금희(3만 9천 5십원), 송사차(2만원)
- 지난주 봉헌금: 221,980원

(노충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보좌 신부 사도 회장
김정원 나준근

1. 중·고등 학생 하기 수련회 내일부터 31일까지, 부안 마포에서
 2.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8월 3일부터 13일까지 부모님들께서 협조 바람
 3. 성서강의: 매주(월·화) 저녁 8시~9시 까지
 4. 성령 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 까지
 5. 금주의 성경 읽기: 구약의 용기 전체
 6. 아파트 구역 특점미사: 매주(토) 오후 8시, 아파트 구역 어린이 교리: 매주(토) 오후 3시
 7.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220,87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보좌 신부 사도 회장
김병업 김기영 유석종

1. 중·고 젊은이 하기 수련회: 7월 28일~31일 까지 장소-진안 상전면 신연리
 2. 주일학교 하기교리: 8월 4일~9일, 시간-오전 8시 30분~12시, ※ 학부형님들의 협력과 특별 찬조바람
 3. 주일학교 자모회: 10시 미사후
 4. 글라라 형제회: 오후 1시 30분
 5. 성가정회: 8월 1일 12시
 6. 7월 28일~31일까지 야침미사 없음(수련회 관계)
 7. 오늘의 전례담당 (27일) 아침미사: 사회-이진홍, 독서-①배양길 ②박종구 공식미사: 사회-이준영, 독서-①이영태 ②이덕수 저녁미사: 사회-김준우, 독서-①경양수 ②임순만
 8. 젊은이 예비자 교리: 7월 28일~8월 17일까지 쉽니다
- 지난주 봉헌금: 392,450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보좌 신부 사도 회장
서석오 조정영 양상열

1. 진복회·부녀회 월례회
 2. 반석회·학생회 2차 모임: 오늘 오후 3시 수련회 전, 준비물 및 지시 사항
 3. 주일학교 특별교리 8월 4일부터~9일까지 오전 9시 부터 오후 3시부터 각 공소(전당, 미산, 대동, 동산)
 4. 첫 영성체반 특별교리: 8월 3일~14일까지 아직 첫 영성체를 하지 않은 어린이는 이 기간동안 꼭 보내 주십시오
 5. 주일학교 보미사단 하계 수련회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 자세한 것은 27일까지 사무실로 문의 바람
- 지난주 봉헌금: 318,03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사도 회장
김영일 채수현

1. 부녀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중·고 학생 하기 수련회: 7월 29일~8월 1일
 3.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8월 4일~9일까지 ※ 중·고 학생 하기 수련회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4. 사도회 확대회: 다음주, 전원 참석 바람
 5. 신학생 후보생을 위한 성소교육 7월 30일 오후 2시~31일, 가톨릭센터에서
- 지난주 봉헌금: 99,720원 교무금: 58,000원 어린이 헌금: 1,985원

(복자)

전화 ⑤238
주임 신부 보좌 신부 사도 회장
김종택 범영배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7월 28일~8월 2일 오전 10~12시, 부모님들께서는 협조 바람
 3. 첫 절레 7: 8월 2일(토) 오후 8시 (많은 참석 바람)
 4. 부녀회 월례회: 6일<수> 오전 10시 부녀회원들은 빠짐 없는 참석 바람
- 지난주 봉헌금: 252,910원